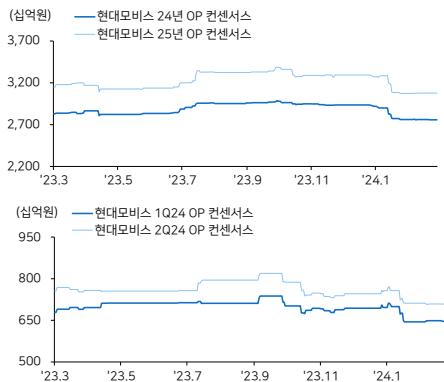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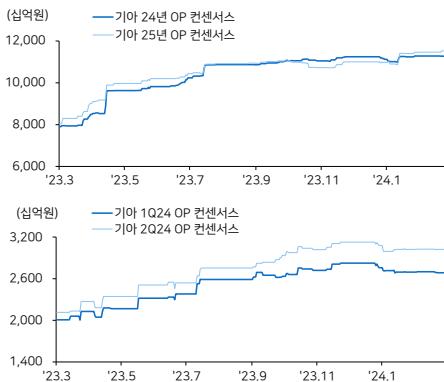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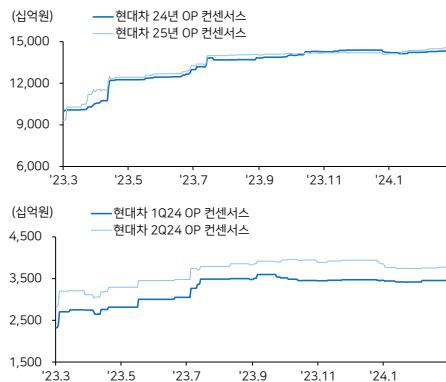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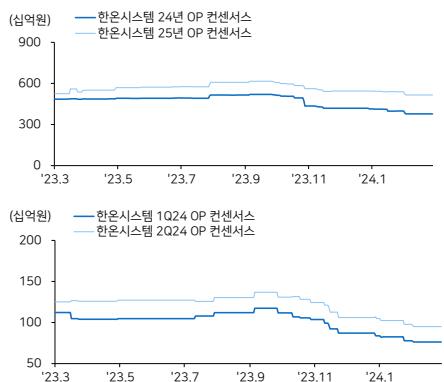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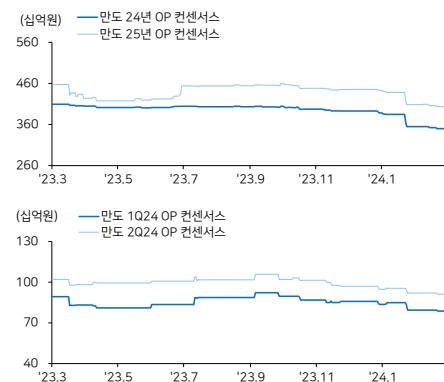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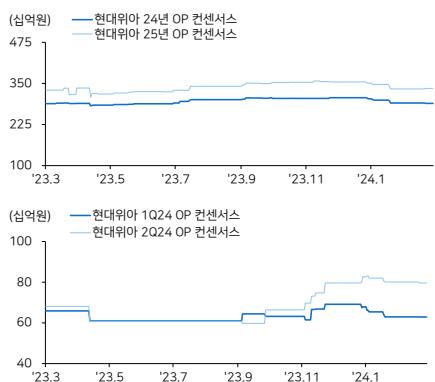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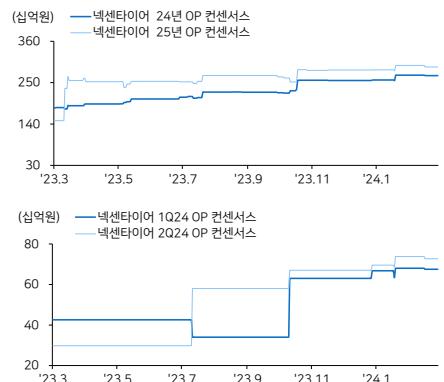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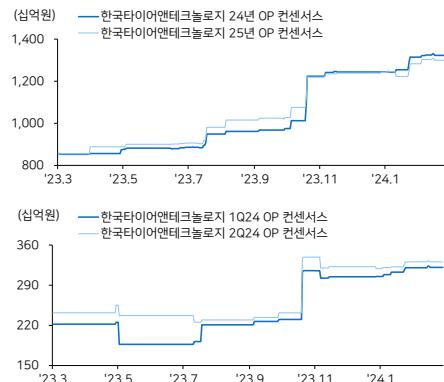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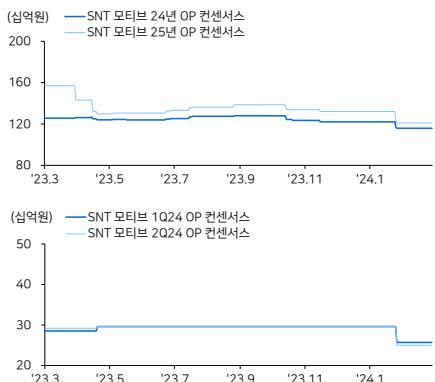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 기아, 美·인니 손실법인 정상화…흑자 전환 성공 (뉴시스)

현대차·기아의 주요 해외 법인이 지난해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당기순이익 정상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2022년-8080억에서 2023년 2363억. 현대차 인니 공장 -365억→817억,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 -1776억→2.3조 흑전

<https://han.gl/ya4k>

비계열사 공략하는 현대모비스…해외 설비투자 대폭 늘린다 (매일경제)

2023년도 현대모비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현대모비스는 국내외 시설·설비투자로 3.2조원을 집행할 계획. 국내법인 시설·설비 투자에 1.2조원, 해외법인에 1.9조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 이는 전년도 전체 투자액 1.8조 대비 69% 늘어난 규모

<https://han.gl/O6f0C>

中 BYD, 내년까지 유럽에 전기차 점유율 3배 늘린다 (디지털투데이)

BYD가 2025년까지 유럽 시장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 BYD는 항가리 공장을 통해 2026년 이전 차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아울러 항가리 공장이 생산을 가능하게 전이라도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5%를 목표

<https://han.gl/qWuW>

Italy in talks with China's Chery on car plant (Reuters)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 정부가 자동차 생산 시설 유치(30만대)를 위해 중국 Chery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도함. 이탈리아는 자국 내 연간 80만대의 생산 규모를 연간 130만대로 확충하기 위해 타국 OEM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왔음

<https://han.gl/eMvR9>

GM, 올해 IRA 세액공제 못 받은 車 2만대 생산 (ZDNet)

GM이 올해 생산한 전기차 중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전기차 재고가 약 2만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 GM은 IRA 배터리 소싱 규정에 따라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급망 재편성에 나섰고, 그 사이 빵이 재고가 2만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

<https://han.gl/MppW9>

현대차, 인도서 2년간 신차 최대 9개 모델 출시 'SUV 승부수' (더구루)

HMIL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인도 시장에 알카자르 F/L, 투싼 F/L, 베르나 N라인, 크레타EV, 코나EV F/L, 액스터EV 등 최대 6개 모델을 출시할 계획. 내년은 아이오닉6, 신형 스타게이저, 펠리세이드 3개의 모델에 대한 출시 챠비 돌입 예정

<https://han.gl/gXn7it>

Having overtaken Tesla, BYD is running into problems overseas (WSJ)

BYD가 해외에 수출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 품질 문제에 봉착. 또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과도한 물량을 해외에 공급하여 대량의 재고가 축적됐다는 분석도 존재. WSJ은 장거리 물류 이동에 대한 경험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

<https://han.gl/q8S2F>

BYD launches refreshed e2 compact EV with 13% lower starting price (CnEVPost)

BYD가 출장 이후 Glory 에디션 출시를 이어가며 MSRP 인하 추이를 지속 중. BYD는 e2 Glory 에디션을 출시, 이전 모델 시장 가격인 10.3만원에서 1.3만원(12.65%) 인하된 8.9만 원으로 조정. CLTC 주행 가능 거리는 405km로 유지

<https://han.gl/vxDlm>

토요타, 25년만 최대 임금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기대 ↑ (이데일리)

닛케이는 도요타가 1999년 이후 가장 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응답했다고 보도. 월급을 최대 25만원까지 인상 예정. 80.1가 마이너스금리 해제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 전환을 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감 상승

<https://han.gl/vi3R3>

SK온, 현대차와 최대 80조 장기 공급계약 협상 (딜사이트)

관계자에 따르면 SK온은 현대차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 수주계약은 대략 590GWh 규모로 최대 80조 달러로 조정. 계약기간은 현재 알려진 바 없는 상태로 내년부터 출시될 현대차 전기차 신모델에 순차적으로 텁재될 전망

<https://han.gl/K2mOy>